

시 심사평*

박두규

5·18문학상 심사는 5·18정신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5·18정신의 문학적 형상화는 단순히 5.18 항쟁 당시의 시대정신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닌 5·18정신의 본질에 대한 현재적 인식과 실천이 녹아 있는 삶의 궤적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의 한 시대정신이 이후 역사 속에서 당대의 국가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의식으로 작동해야 하는가의 고민 속에서 시가 쓰여 졌기를 바라며 심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먼저 기본적으로 문학적 기량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며 55편 중 29편을 선별했고 그 선별된 작품들을 5·18정신의 본질에 대한 현재적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으며 14편을 뽑았고 3번째 읽을 때는 감동이 있는가와 작품의 완결성 정도에 중심을 두고 5편(6,16,36,41,50)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마지막 2편(6,36)을 골랐습니다.

두 편 중 36번의 시는 시어의 구사가 탁월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좋은 시였으나 시상의 전개가 좀 산만하고 시의 구성과 내용의 집중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당선작으로 결정한 6번은 모두 4편으로 화려하고 잘생긴 시는 아니지만 튼튼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내용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선작으로 내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